

漢書 朝鮮傳

한서: 후한(後漢) 초 서기 80년 경 반고(班固)에 의해 완성됨. 사기(史記)는 기원전 97년. 약 180년의 격차. 사기, 후한서(後漢書)와 함께 삼사(三史)로 칭해짐.

사기와 한서 모두 기전체(紀傳體, 황제의 전을 본기로 하고, 그 주변 개인의 전기를 열전으로 배치). 하지만 사기가 통사(通史)임에 반해 한서는 단대사(斷代史). 사기: 五帝本紀, 夏本紀, 殷本紀, 周本紀, 秦本紀, 秦始皇本紀, 項羽本紀, 高祖本紀... 한서: 高帝記, 惠帝記, 高后記, 文帝記, 景帝記, 武帝記...

한서가 사기에 비해 황제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더 엄격하게 고수. 더 正史的. 사기의 항우본기.

사기: 본기, 표(表), 서(書, 제도, 지리, 천문), 세가(世家. 제후들의 역사), 열전(列傳), 태사공 자서(太史公自序, 저술의도)

한서: 본기, 표, 지(志, 제도, 지리, 천문), 열전, 서전(叙傳, 저술의도)

한서가 사기보다 더 엄격하게 유교적 스탠더드를 고수. 한서 <사마천전> 중: “그가 역사적 시비선악을 논한 부분은 성인의 뜻에 크게 어긋난다. 그래서 대도를 논함에 황로를 앞세우고 욕경을 뒤로 하며, 유협을 서술함에 처사를 배척하고 간웅을 추겨 세우며, 화식을 말함에 권세와 이익을 존중하고 빈천을 부끄러워한다. 이것이 그의 어리석은 점이다.”

조선전: 사기 조선열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재함. “조선왕 만(滿)은 연(燕)나라 사람이다.” 위만(衛滿)조선을蠻夷로 표현하지 않고, 진번(眞番)조선은 만이로 간주하는 것도 동일. 다만 이른바 한사군(漢四郡)의 구체적인 명칭을 최초로 열거: 眞番, 임둔(臨屯), 낙랑(樂浪), 현토(玄菟)

丹齋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爲堂 정인보의 <조선사연구>에 나오는 고조선史 해석

일연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는 조선 고유의 신화가 아니라 불교가 수입된 이후에 불교도에 의해 각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 단군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족의 공동 신앙을 지칭. 단군왕검은 종교의 敎主. 조선은 나라의 국명이 아니라 종족을 지칭.

기원전 10세기 경부터 5-6백년 동안이 단군조선의 전성기. 고죽국(孤竹國, 지금의 永平府, 현재의 난하(灤河) 하류 동부연안에 있는 盧龍縣)과 직예, 산서, 산둥 등지를 근거지로 한 불리지국(弗離支國)이 조선족의 나라. 기원전 7세기 말 고죽국과 불리지국이 燕나라와 晋나라를 공격, 연과 진이 제(齊)에 도움을 요청. 제의 환공(桓公)과 재상 관중(管仲)이 연을 구하기 위해 불리지국을 멸하고 고죽국을 쳐서 이김. 공자가 관중의 공을 칭찬하여 “관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동이족들처럼 편발머리를 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게 되었을 것이

다” (논어 憲文篇) 이 전쟁으로 조선은 서북지방을 상실하고 쇠약해짐.

이전 역사에서 단군이 평양에 도읍했다가 뒤에 구월산으로 옮겼고, 그 자손대에 기자(箕子)를 피하여 북부여로 갔다고 한 것은 “妄說”. 아사달(阿斯達)은 구월산이 아니라 하얼빈에 있는 완달산(完達山)임. 완달산은 단군왕검의 상경(上京), 개평현 동북의安市古墟인 ‘아리타’는 中京, 평양은 南京. 이 중 완달산이 본부.

三朝鮮의 분립: 단군, 기자, 위만으로 잘못 이해. 신한, 말한, 불한의 세 韓이 분립한 것. 신한이 大王이고, 말과 불은 副王. 이두문으로 辰韓, 馬韓, 卞韓, 또는 眞조선, 莫조선, 番조선으로 번역됨. 이중 진조선이 고조선의 적통. 사기 조선열전과 한서 조선전의 ‘진번조선’은 진조선과 번조선을 가리킴. 진조선은 길림, 흑룡강성과 연해주 남단, 번조선은 요동지역, 막조선은 압록강 이남에 위치. 위만조선은 번조선. 사기에서는 진조선은 ‘동호(東胡)’라 칭하여 흉노전에 포함시킴.

*선진시대부터 서한 초까지 요동은 요하 동부지역이 아니라 灤河 동부지역이었음. 이 시기 요수(遼水)는 난하를 지칭. 정인보: “요수는 古와 今の 이종이 있다. 그러면 古遼水는 어디냐? 지금 영평부의 난하가 고대로는 요수이다.”

정인보: 조선족의 發祥本土는 부여(夫餘). 예(濊), 예맥(濊貊)은 산둥, 직예, 산서 지역 일부를 포괄. “예의 강함은 조선왕조의 盛時로 볼 것이다.” 읍루(挾婁)는 부여의 동북단. 문화적으로 가장 뒤쳐짐. 옥저(沃沮)는 기존 견해에서 지적하듯이 개마고원 동쪽이 아니라 요수 부근의 삼림지에 위치. “진개의 군에게 대패하기 전에는 요동, 요서는 물론이요, 상곡, 漁陽, 右北平이 모두 고조선의 판도요 산둥으로는 兗州 일부에까지 連亘하였으며, 徐夷일부는 산동해안으로 진취적 침입을 圖하던 조선인....”

* 정인보: “고조선인 懷舊의 念이 지극하던 까닭에 이르는 곳마다 故居를 모방하여 대동강 안에다가 평양 혹은 낙랑의 稱을 붙이어서 이로써 바 있었던 것이어늘 후세사자들이 究本하는 안식이 없음이 導引이 되어 白紙 數長 위에서 천리의 土壤이 손쉽게 왕래하였다.”

삼조선 분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조선은 번조선, 막조선과 연합하여 동몽고 등지를 쳐서 선비족을 정복하고 연나라를 공격하여 불리지의 옛 땅을 회복. 하지만 연나라 장군 진개(秦開)의 활약으로 불리지의 옛 땅을 다시 빼앗고, 요서와 요동을 함락시켜 장성을 쌓음. “처음 연나라때부터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켰다” 진번과 조선이 아니라 진조선과 번조선. “연장 진개에게 습격을 받아서 上谷으로부터 요양까지 약 이천리의 舊地를 빼앗기었나니 위만의 亂과 사군의 擾가 모두 이 一敗에서 비롯함이라. 그런즉 예의 쇠약이 그대로 朝鮮五朝의 쇠약이다.” (정인보)

기원전 194년에 연의 유민 위만이 차지한 조선은 번조선. 위만이 도읍한 왕검성은 개평 동북 지역에 위치. 위만이 溟水를 건너 조선으로 넘어 왔다고 했는데, 이 溟水는 현재의 河北省 동북부에 위치한 난하(灤河)로 추정됨. 대동강이나 압록강이 아님. 위만조선은 난하 동쪽으로부터 大凌河까지의 지역으로 추정됨. 정인보: “연왕 喜가 요동을 收하였다는 요동이 지

금 요하의 東이 아니라 곧 난하 以東 부근을 가리킨 것이요...”

*따라서 한사군 또한 난하에서 대릉하 사이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음. 난하 동부연안 지역에는 조선이라는 지명이 있고 또 한서에서 漢武帝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동쪽으로 碣石을 지나 현토와 낙랑으로 郡을 삼았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한사군이 하북성 昌黎의 갈석 동쪽에 있었음을 의미.

정인보: “위만이라는 자가 반당의 죄명이 미칠 줄을 알고 망명하여 조선으로 오는데 수천의 徒衆을 모아서 一團을 만들고 또 의복, 髮鬚를 모두 조선인 같이 차린 다음에 동으로 關塞를 나와서 패수를 건너 來降하니 전부터 한인의 歸附함을 많이 接濟하던 터인지라 장래 어떠한 화근이 될 것을 어찌 생각하였으랴?” ... “왕준의 왕조가 이름으로 總王의 칭을 가졌을 뿐이지 所領으로 말하면 고조선 몇 분의 일이니 귀화한 외인이나 撫摩하여 이것들의 盡力이라도 얻어 가지고 一隅를 버틸 수 있을까 함이 漸深하여 가는 自族中 孤로 쫓아 苟且하나마 아주 없지 아니하여 漢土流民의 일단을 部勒하여 가지고 西界를 수비하겠다는 말을 자못 傾聽한 것이다.”

변조선의 남천: 위만에 패한 변조선의 왕 기준(箕準)이 막조선(마한) 지역으로 이주. 이후 마한은 낙동강 연안의 땅을 진조선의 유민과 변조선의 유민들에게 줌. 진한과 변한의 기원. 진조선 중심이었던 고조선의 분립체제가 막조선, 즉 마한 중심으로 재편됨.

